

2026. 3. 16.(월)

회원조사팀

미국-이란 군사 충돌에 따른 안산기업 피해 실태 및 긴급 대응 조사

목 차

I. 조사 개요	2
II. 조사 결과	3
1. 기업 경영환경 영향	3
2. 기업 경영실적 영향	5
3. 중동 거래처 및 수출 영향	7
4. 기업 대응 및 정책 수요	8

I 조사 개요

□ 조사 목적

-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및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 변동, 물류망 불안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바, 이에 현 상황이 회원사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,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실효성이 있는 지원 대책을 건의하고자 함

□ 분석 대상

- 안산시 소재 기업

□ 조사 기간

- 2026년 3월 4일(수) ~ 3월 11일(수), 8일간

□ 조사 방법

- 온라인 조사

□ 조사 내용

- 현 사태가 기업경영 환경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
-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 수요

□ 응답 현황

	구 분	응 답 수	응답비율
기업 규모	50인 미만	70개사	58.3%
	50인 이상 ~ 100인 미만	17개사	14.2%
	100인 이상	33개사	27.5%
합 계		120개사	100.0%

II 조사 결과

1. 현 사태가 기업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

□ 미국-이란 군사 충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여부

- 응답 기업의 86.7%(104개사)는 미국-이란 군사 충돌이 기업경영에 ‘영향이 있다’ 라고 응답하였으며, 13.3%(16개사)가 ‘영향이 없다’ 라고 응답.

이는 대다수 기업이 이번 사태를 경영환경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□ 중동발 원자재(석유화학, 가스 등)의 수급 차질·단가 상승 예상 여부

- 군사 충돌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 중 85.6%(87개사)는 중동발 원자재의 수급 차질 및 단가 상승을 ‘다소 심각’ 하게 예상하였다.
- 또한, 7.7%(8개사)는 ‘매우 심각’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6.7%(7개사)는 ‘영향 없음’ 이라고 응답하였다.

이는 중동 지역이 글로벌 에너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의 핵심 지역인 만큼,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 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불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.

□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항로 불안에 따른 물류 영향 예상 여부

- 주요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등의 불안정으로 인한 운송 기간 지연 및 운임상승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, 87.5%(91개사)가 ‘다소 심각’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, 6.7%(7개사)는 ‘매우 심각’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반면, 5.8%(6개사)는 ‘영향 없음’ 으로 응답하였다.

□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 원가 및 공장 가동 비용 부담 예상 여부

- 유가 상승이 기업의 제조 원가 및 공장 가동 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2.7%(86개사)가 ‘다소 심각’ 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7.7%(8개사)가 ‘매우 심각’ 이라고 응답하였다. 반면, 9.6%(10개사)는 ‘영향 없음’ 이라고 응답하였다.

이는 국제 유가 상승이 에너지 비용 증가뿐 아니라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.

□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 리스크 발생 여부

- 미국-이란 군사적 충돌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외환 차손 또는 대금 결제 지연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, ‘영향 없음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.4%(67개사)로 가장 많았다. 이어 33.7%(35개사)는 ‘발생 우려’ 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1.9%(2개사)는 ‘이미 발생’ 하였다고 응답하였다. 한편, 환율 변동성 확대가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피해 발생(또는 예상액)은 구간별 분포 표는 아래와 같다.

(통화 기준: USD)

피해(예상)액	기업 수(개사)	응답비율(%)
1만 달러 미만	2	5.4
1만~5만 달러 미만	5	13.5
5만~10만 달러 미만	12	32.4
10만~50만 달러 미만	16	43.3
50만~100만 달러 미만	0	0.0
100만 달러 이상	2	5.4
합 계	36개사	100%

2. 현 사태가 기업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

□ 현 사태로 인한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영향 여부

○ 미국-이란 군사적 충돌로 인하여 올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, ‘매출 감소’를 예상한 기업이 82.7%(86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‘영향 없음’은 16.3%(17개사), ‘오히려 매출 증가를 예상’한 기업은 1.0%(1개사)로 조사되었다.

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영향 여부

구분	감소 예상	영향 없음	오히려 증가 예상
매출	82.7%	16.3%	1.0%
영업이익	79.8%	20.2%	0.0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‘매출 증가 예상’이라고 응답한 1개사는 ‘작년 대비 20% 증가’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, ‘매출 감소 예상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아래 표와 같다.

매출 감소 예상 규모	기업 수(개사)	응답 비율(%)
5% 미만	15	17.6
5% 초과 10% 미만	19	22.4
10% 초과 20% 미만	17	20.0
20% 이상	34	40.0
합 계	85개사	100%

※ 비현실적 응답 1건은 상기 표에서 제외 (응답: 25,000)

○ 한편, 영업이익의 경우 ‘감소를 예상’한 기업이 79.8%(83개사)로 나타났으며, ‘영향 없음’은 20.2%(21개사)로 조사되었다.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영업이익 감소 예상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.

영업이익 감소 예상 규모	기업 수(개사)	응답 비율(%)
5% 미만	4	4.9
5% 초과 10% 미만	24	29.6
10% 초과 20% 미만	31	38.3
20% 이상	22	27.2
합 계	81개사	100%

※ 비현실적 응답 2건은 상기 표에서 제외 (응답: 5억 이상, 100,000,000)

○ 이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원자재 가격상승, 물류비 증가,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면서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대다수임을 보여준다.

□ 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예상 여부

○ 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, ‘10% 미만 생산량 감소’를 예상한 기업이 55.8%(58개사)로 가장 많았다. 이어 ‘영향 없음’과 ‘해당사항 없음’이 각각 19.2%(20개사)로 나타났으며, ‘10% 이상 생산량 감소’를 예상한 기업은 5.8%(6개사)로 조사되었다.

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예상 여부

10% 이상 감소 예상	10% 미만 감소 예상	영향 없음	해당 없음
5.8%	55.8%	19.2%	19.2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3. 중동 거래처 및 수출 영향 여부

□ 예정되었던 중동 지역 수출 계약의 취소나 보류 사례

○ 예정되었던 중동 지역 수출 계약의 취소 또는 보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, ‘없음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5.8%(58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‘해당 없음’ 41.3%(43개사), ‘있음’ 2.9%(3개사) 순으로 응답하였다.

○ 수출계약의 취소나 보류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3개사의 피해 예상액은 각각 USD 20,000, USD150,000, USD2,000,000라고 응답하였다.

□ 중동 현지 지사나 파견 인력의 철수나 사업장 폐쇄 검토 여부

○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라 현지 지사 철수 또는 사업장 폐쇄 검토 여부를 조사한 결과, ‘현재 검토계획 없음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3.9%(56개사)로 가장 많았다.

○ 이어 ‘현재 검토 중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6.3%(17개사)로 나타났으며, ‘철수 또는 폐쇄 진행 중’ 인 기업은 1.0%(1개사)로 조사되었다. 한편, ‘해당 없음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8.8%(30개사)로 나타났고, ‘이미 철수/폐쇄’ 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중동 현지 지사·파견인력의 철수 또는 사업장 폐쇄 검토 여부

이미 철수/폐쇄함	철수/폐쇄 진행 중	검토 중	검토계획 없음	해당 없음
0.0%	1.0%	16.3%	53.9%	28.8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4. 기업 대응 및 정책 지원 수요

□ 중동발 원자재·에너지의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 여부

○ 중동발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비한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, ‘일부 대체 가능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0.0%(52개사)로 가장 많았고, ‘해당 없음’ 33.7%(35개사), ‘사실상 어려움’ 16.3%(17개사) 순으로 응답하였다.

○ 한편, 이미 대체 공급처를 확보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중동 지역의 원자재 및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단기간 내 공급망 전환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.

중동발 원자재·에너지 대체공급처 확보 가능 여부

이미 확보	일부 대체 가능	사실상 어려움	해당 없음
0.0%	50.0%	16.3%	33.7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중동발 원자재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가능 여부

○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, ‘일부 반영 가능’ 이라는 응답이 54.8%(57개사)로 가장 많았다.

○ 반면 ‘거의 불가능’ 하다는 응답은 17.3%(18개사)로 나타났으며, ‘해당 없음’ 은 27.9%(29개사)로 조사되었다. ‘대부분 반영 가능’ 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중동발 원자재 원가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가능 여부

대부분 반영 가능	일부 반영 가능	거의 불가능	해당 없음
0%	54.8%	17.3%	27.9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정부 및 지자체에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

○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으로는 ‘수출입 물류비·보험료 지원 확대’가 40.4%(42개사)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.

○ 이어 ‘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대출 금리 인하’가 37.5%(39개사)로 나타났으며, ‘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’은 22.1%(23개사)로 조사되었다.

가장 시급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

구분	응답(%)
수출입 물류비·보험료 지원 확대	40.4
긴급경영 안정 자금 및 대출 금리 인하	37.5
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	22.1
기타 의견	0.0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현 사태에 대한 기타 자유 의견

○ 자유 의견을 기재한 기업들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‘유가 등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부담’과 ‘글로벌 물류(운송)비 상승 및 운송 지연’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안산 소재 제조기업 중 한 기업은 ‘매출의 70% 정도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히잡 관련 가공재로,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및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출에 큰 피해 우려된다’고 밝혔다.

- 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【T. 070-4571-5812】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○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
○ 발행일: 2026. 3. 16.

[비매품]